

고은 불교 대화소설

두 사람의 나그네 길

“아 나! 스님게서!”
라고 파현이 그의 큰 눈망울을 더욱 크게해서 놀라는 것이었다.
바로, 그가 기어이 찾아야겠다고 다짐한 수월을 쫓아온 이쁜아침의 무서리 마당에서 만나게 되었다.
“어찌 객지의 빛자루를 쥐는 신세가 되었는가?”
별씩 수월은 무욕도의 수행시대에 달리 남다른 풍모로 달려져 있었다. 파현 따위를 대면해 눈아래에 두고 아주 자연스럽게 반말을 던지는 것이었다. 아무려나 반갑기 그지없었다. 수월은 파현이 울타리 밖의 행갈까지 착실하게 즐기며 마칠 때까지 객지 앞의 하얀 서리에 덮힌 빈 언덕을 바라보고 있었다.
“밥은 다 치루었지?”
“그런 셈입니다.”
라고 파현이 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다.
한가지 의아한 것은 그가 금강산으로 가기로 작정한 바라면 왜 이제까지 수월 언저리 밖에 나아가지 못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였다.
파현이 물었다.
“여기까지 오시는 걸음이 꽤 더디셨습니까?”
그때에야 수월이 파현이 묻는 의도를 알아차렸다.
“나도 파현님처럼 이 산하대지를 떠돌며 갖가지 경계에 부딪치고 싶었지. 그래서 남도방 해남 토말(土末)에까지 가서 그곳에서 탐라도(耽羅島)로 건너가려했지... 그런데 배가 떠난지 얼마되지 않아 갑자기 괴풍(怪風)이 일어나 그만 배가 난파한 지경에 겨우 널조각 하나를 목숨의 다른 사람과 서로 다투어 가지러다가 내가 죽기를 작정하고 그것을 양보하고 가려했었지. 해엄치기를 못하는 사람도 아닌데... 해엄칠

이를 면했었던 것이다.
그 길로 내장산 끝무렵의 깃빛 단풍을 보고 내려와서 내내 걸음을 놓았으니 그 넓은 들녘의 가을경치가 끝난 뒤의 나락거리 풍경은 하늘과 땅과 사람 그리고 함께 때 따위가 다같이 상측(相測)하는 경화 그것이었다.
그렇게 정 맑은 고장을 지나 끝나무를 건너 계룡산에 들어갔다 거기서 공주 사현(沙峴)을 넘어 수월성에 이르렀던 것이다.
굳이 생각하자면 수월은 늦게 무욕도를

“금강산 회월당이라!”
이어서
“금강산 신계사 회월당이라!”
다음날 그는 계룡산 신원사 암자를 떠나 그 길로 걸음에 걸음바람을 더하였다.
수월 남문에서 북문을 지난 수월과 파현은 만난 반가움 다음으로 함께 길을 걷는 자의 일치때문에 거의 생각도 비슷해지는 것이었다. 물론 파현이 수월의 기운을 따르게 되었지만 파현으로서는 굳이 금강산 한 군데를 작정하는 것이 달갑지 않았으나 일단 거기까지는 수월과의 동행을 미더하

깊은 산중의 비바람치는 바위위에서나
폭포소리에 귀가 멍멍해지는 곳에 앉아
삼매에 드는 수련보다 더 어려운 것이
저자와 촌락을 떠도는 행선이 아니던가

달출한 파현을 만나기 위해서 뒷걸음질친 셈이기도 하였다. 어디 가셔도 없애는 것(無道成道)이라던 굳이 여기저기에 나타날 일도 아니건만 그러나 수행자가 정작 대중에 의지하는 일에서 떠나 차고 깨는 일을 오로지 저 혼자 이어가는 나날의 공부는 쉬운 바가 아니다.
그야말로 한 소식을 얻은 사람의 수준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깊은 산중의 비바람치는 바위 위에서나 폭포소리에 귀가 멍멍해지는 그 불기운 가득한 곳에 앉아 삼매(三昧)에 드는 수련보다 더 어려운 것이 세상의 저지와 촌락을 떠돌며 하는 행선(行禪)이 아니던가.
수월은 이번 탐라행의 실패로 말미암아 아직 그에게는 세상을 떠도는 자유자로서의 공부는 이르다고 판단하였다.
그만큼 그는 자신에게 철저했던 것이다.
“종지(宗止)를 뛰어넘을 일이라! 그러자면 나는 아직 멀었어... 종지를 뛰어넘어

지 않았다.
수월 북문 밖 울창한 소나무숲 목아치고 밑에는 괴나리못집이나 등짐장수 그리고 바리를 실은 말과 나귀들이 웅성대고 있었다.
전날 목아지고계에서 큰 봉돌집이 탈리고 대장집 종의 목숨이 희생되었다 하였다. 파현 목아치고계라는 이름이 을까년스럽게 걸맞았다.
그들의 불안 가운데서 빈 돌인 운수승(雲水僧)일지라도 함께 걸음을 멈추었다. 고개 밑의 마방에 딸린 국밥집이 있지만 그 집은 그들의 차례까지 되지 않았다.
수월이 성큼 걸음을 나섰다.
“가세.”
“산작이 아직 숨어있어서 수월님 병들어 나 포졸이 없어도 못하는 형편이라 합니다.”라고 파현이 주저하였다.
“가세.”
라고 수월이 벌써 저만큼 가고 있었다.



그림·조향숙

수월성에서 만난 수월과 파현은 금강산 회월당 도인을 찾아...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하겠는가?”
“무엇을 하든요. 수월스님을 찾아나선 길입니다.”
“다시 섬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아닙니다. 스님을 따라 조선팔도를 다닐 작정입니다.”
“금강산이라도 들어갈 생각은 아니겠는가?”
“딱히 금강산을 비껴갈 일은 아니로되 그곳도 스쳐가자지 그곳에서 꼭 딱히 살 생각이라면 무욕도 도량이나 다름 바가 무엇입니까?”
“다들 바는 좀 있겠지. 금강산 신계사(神溪寺) 아스라히 거기에는 흰 눈발이 다섯치(五寸)를 넘게 쌓인 회월당(回月堂)이라는 도인이 계시대니 무욕도 보살 따위보다는 요망을 떨치 않겠지.”
“나는 우선 그곳으로 가고 하얀 다섯치 눈발 도인과 마주앉아볼 작정이야네.”
파현은 이런 수월의 뜻에 지극히 실망하였다. 그는 어디 한 군데를 목적지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경가 무욕도 산꼭대기 울막에서 수월이 탁 내뿜은 말에 “여기도 지방법계(十方法界)를 다 포함하지 말라는 법은 없었지... 그러나 나는 이승에서라도 온 세상 팔방까지 바다끝까지 떠도는 공부를 하고 싶어... 이 몸의 사대(四大)가 다 흩어져 한 오리 연기의 꼬리로 사라질 때까지...”
그러던 수월이 금강산으로 가는 길임을 밝혔을 때 파현의 실망은 당연한 것이었

다.
“그것이 무엇인줄 아지도 몰라. 내가 기절한 상태였으니까.”
난파한 뒤의 수월은 해남 앞바다의 작은 섬에 놀려져 살아나 있었다. 그를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은 섬의 남너노수였다. 수월이 의식을 회복하자 이제까지 숨을 쉬도

복 앓을 쓴 섬의 남정네가 쉬는 동안에 “꾸우”하고 수월의 숨통이 터졌고 팔쪽의 기력이 풀려났다.
“중이 산중에 있지 않고 불에 나오니 이런 줄이지!”라고 그를 살려낸 섬의 남정네가 깊은 수염을 끌어내며 통명스럽게 말하였었다.
그 섬에서 비린 생선과 젓갈 따위의 반찬에 비록 보리밥이나 고동밥으로 대접하는 인심을 뒤로 하고 도로 해남방에 건너온 것이었다.
“내 쪽에 무슨 탐라국 신선이던고?”
라고 그는 토말 포구에서 두말할 것 없이 북쪽으로 향하였다.
다만 전라도 정읍 내장사에서 큰 불공이 들어와서 마침 그곳의 객승으로 있다가 그 불공에 동원된 뒤 보시금을 받아 빈 탈탈

법(法)을 있는 그대로 찾아오는 배(越格) 아발로 내가 잠자 터득할 일건만...”
수월은 실로 놀름하였다. 이제까지 무욕도에 있다가 그곳을 떠나자마자 마치 효소로 인해서 밀가루반죽이 풍요하게 부푸는 것처럼 그의 구도자로서의 위와 실속같은 공부의 무게가 갖추어져 누가 보면 전혀 클라랄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계룡산에서 함께 잔 키작은 객승 하나가 건너편에 돌을 던지듯이 벽에 대고 한 마디 던졌다. 벽에 닿은 그의 말이 수월의 귀에 닿았다.
“화상은 금강산이나 가보소. 그곳 신계사 회월당하고 씨름 한 관 보여보소.”
그해 수월은 괜히 번쩍 눈이 떠졌다.
“금강산!”
이어서

다른 사람들도 그런 수월을 빈정대며 말하는 것이었다.
“여보소 대사! 저승길인 줄이나 알고 가소.”
아무런 대꾸도 없었다. 할수 없었다. 파현도 그런 수월을 뒤따랐다. 그러자 한양 남대문 안 노도를 어서가서 보아야한다는 효성의 중년파리도 두 사람을 금히 따라붙었다.
술에 취해있는 늙은 포졸 하나가 “저 상투도 없는 물건들이 겁도 없이 길을 나서서 것은 제 정신이 아닐 터이지!”라고 방관하였다.
세 사람은 제법 비탈진 고개의 으스스한 숲길을 올라갔다. 이윽고 고개마루턱에 이르렀다.
찬 기운의 바람지락이 띠를 두르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들의 긴장이 대기하고 있던 산적은 고개를 넘어가는 동안 나타나지 않았다.
“허어! 이 목아지고계 숲에는 무명수(無明樹)도 울창하거나 보리수(菩提樹)도 울창하다.”
무명 번뇌의 나무와 보리 지혜의 나무의 대칭(對稱)을 얹어 그걸을 하나로 말하는 뜻이었다. 물론 수월이 한 말이었다.
두 운수승을 따르온 효치가 한 마디 남겼다.
“사람들은 정작 무서워해야 할 때는 무서워하지 않다가 변을 당하거나 무서워할 겨를이 없는 곳에서는 지레 겁을 먹고 몸을 부들부들 떠날뿐입니다.”
그런 말에 아무도 대답이 없었다. 그 뿐이 아니었다. 그를 세사람은 한양성 밖의

노들나무를 건넌 때까지 그 1백릿길을 도무지 입을 깨면 채었던 것이다.
말이 그렇게도 쓸모없을 줄은 미처 몰랐던 셈이었다.
남대문은 웅장하였다. 그 아래에서 사람들이 장광스럽게 여겨지는 것이었다.
“어서 가보세.”
라고 그때에야 수월이 동행자를 떼어놓는 것이었다. 도성(都城)에는 승려가 출입할 수 없으므로 수월과 파현은 남대문 밖에서 이태원 비탈의 빈 밭길을 넘어갔다.
거기서 미야리를 돌아가지만 일찍 찾아온 추위에 맞서 더운 몸이 될 만큼 걸음을 재촉해야 하였다. 듣는 바 없이(無聞), 듣는 바 없이.

아주 소중한 비밀을 그대에게 전하니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라!

-벼락처럼 단번에 지르는 지혜의 원성-
2천 5백년 전 붓다가 돌렸던 진리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금강경
오소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금강경)은 다이아몬드다. 세상의 모든 벽 중에서 가장 소중한 보배다!
“그대안에 잠들어 있는 붓다”를 흔들어 깨우는 인생의 큰 스승 오소 라즈니쉬! 그만의 독특한 깨달음의 언어와 강의법, 탁월한 삶의 인식으로 “우리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붓다”를 흔들어 깨운다. 어떠한 짐착도 번민도 없는 무상도의 세계. 구름 너머 저 멀리, 깨달음의 반오로 인도하려는 그의 노래가 우리에게 시공을 초월한 감동과 눈물을 흘리게 한다. **앞에 써온 우리에게 생불과도 같은 활력과 생기를 부여하는 유일한 인생의 지침서!**
전국판 432면 / 17,000원



살을 논하는 영혼의 성자, 깨달음의 스승
마조, 조주, 임제를 아십니까?

이 존재를 모르면 세상이라고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한 인간의 가장 처한 높은 지적
유화가 바로 신(神)입니다.
이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당신은 초법입성
(超凡入聖)의 세계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조가 담담한 한나더란 그 역시 당신의 머리를 깨어낼 것이고
조주는 그 낯은 종갓아리를 부처의 몸으로 조각할 것이며
임제는 부처의 머리를 가지다 그 몸이 불어올 것이다!

임제 RINZAI
조주 JOSHU
마조 MATZU

오소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전국판 / 각권 15,000원

(법구경)은 나를 완전히 날아뱉었다!
나는 허상의 옷을 모두 벗어던지고 그를 받아들였다!

깊은 인상을 받고 싶은 사람! 그러나 그 인상을 물려 매여주는 사람! 그를 위해 깨달음의 스승 라즈니쉬가 (법구경) 강의를 시작한다.
오소 라즈니쉬! 그는 영조가 무성한 법구경이라는 향을 완전히 끊어 버렸고 그리고 그 뒤에 다시 깨달음의 씨앗을 뿌린다. 우리는 그의 법구경 강의를 통해 고대부터 현대까지 스승의 길을 통해 흘러나오는 깨달음의 언어, 방랑 전제승된 불교적인 생동감 넘치는 삶의 지혜, 그 무한한 지혜가 우리를 인도한다.

법구경
오소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전2권 / 각권 15,500원

“마음을 변형시키고 초월시키는 모든 길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

●112 가지 명상방법 무상계 완역공제
인생을 통일하게 할 것인가? 불(佛)하게 살 것인가?
목마는 영혼이여 권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태어났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고민이 없이 삶에
무엇이 무의미, 무관하게 빠져 버린 메아리 책과 양면한
삶의 태도에서 어떤 깨어남이시겠습니까?
인도 5000년의 지혜 “비교”나 바이라바 탄트라,
국내 출판 사상 최초 완역본!

탄트라비전
오소 라즈니쉬 강의 / 이만희 옮김
전4권 / 각권 16,500원

라이온출판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4기 36 대동빌딩 927-2831 팩스 924-3236